

주거환경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 중산층 아파트 거주 주부를 대상으로 —

A Case Study on the Experience of Housing Environment

— In the case of Middle class Apartment Residents —

이	연	숙*
Lee,	Yeun	Sook
박	은	선**
Park,	Eun	Se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iddle-class housewives' experience of housing environment through their own cognitive expressions.

Subjects were 18 housewives living in the apartments at Junggye-Dong, Seoul and Field survey method was used. Indepth interview technique with planned questionnaire was used. The contents of individual's housing life history were recorded by means of a recording machine. Cognitive expressions of subjects on their experience of housing environment were analyzed by Content Analysis.

Subjects have respectively experienced various housing types. The housing experiences were classified by stimuli and responses. Stimuli were again classified by the factors and characteristics of housing environment, whereas responses were classified by types and directions. Negative experiences were more frequent than positive ones. Negative evaluations were appeared more frequently in such case as the existence of community facilities, interior structure, bathrooms, and heating systems. The positive emotional experiences appeared more frequently were the natural characteristics of outdoors. When all the contents were analyzed by housing types experienced, subjects negatively remembered community facilities in high-rise apartments, and positively outdoors in detached single houses including traditional houses, and negatively heating systems in low-rise apartments and tenement houses.

These contents, especially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past experience, can be used as basic data to understand residents' responses and to plan future houses more desirable for them.

* 정희원, 연세대 주생활학과 부교수
** 정희원, 연세대 주생활학과 연구조교

I. 서 론

주거는 인간-환경상호작용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로서(Weidemann & Anderson, 1986), 주택이 실제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먼저 환경과 인간과의 관계를 이해하려는 시각에서 접근되어 질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이 주거환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에 반응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주거환경의 질을 평가할 수 있다. Hornback과 Shaw(1972)는 주거환경의 질이란 거주자에게 적합한 객관적 조건과 이 조건에 대한 거주자들의 주관적 반응의 함수라 하였다(강봉수, 1987).

이러한 주거환경에 대한 현재의 만족과 같은 반응은 거주자들의 특성 및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경험에 근거한다. 이는 똑같은 하나의 객관적인 실체로서의 주거를 각기 다르게 표현하고 이에 다르게 대응하고 평가한다는 사실에서 쉽게 증명된다. 주거환경에 대한 과거의 경험은 단순히 현재주택에 대한 만족도만을 가늠하는데 그치지 않고 현재 주택의 가구와 사물의 상대적인 위치를 결정하기도 하며 미래주택의 디자인 및 구조의 우선 순위 결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침으로써(Lawrence, 1983), 현재 생활에서의 의사결정은 물론 미래계획의 기본적 배경이 된다. 따라서 미래주택이 주관적 실체로서 인간을 위한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공간사용자의 현재의 주거환경 경험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즉 과거의 주거환경경험은 현재의 평가와 만족, 미래 욕구의 기본이 되는 주요 기반으로서, 주거문화의 맥을 잇고 그것을 형성하는 기초단위로서 중요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주거환경경험의 내용을 개인의 주관적 표현에 의해 동적으로 파악하여, 과거주택들로부터 현재 주택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주거환경자극과 그에 대한 반응, 즉 주거환경과 인간과의 상호작용적 관계를 포괄적으로 다룸으로써 거주자 측면에서 본 주거환경의 질적요소를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탐색적 시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중산층 주부의 주거환경 경험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로서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이 생활하였던 주택의 유형을 파악한다.

둘째, 주거환경경험의 내용중 언급된 환경적 자극과 그에 대한 반응을 파악한다.

셋째, 경험한 주택유형별로 많이 언급된 주거환경 자극을 파악한다.

II. 문헌고찰

본 연구의 주 목적은 주거 환경을 하나의 객관적 실체인 물리적 환경으로 파악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주거환경을 물리적 자극으로 보고 인간의 경험을 그에 대한 반응으로 파악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주거환경 경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반 이론을 정리하며 주거환경 경험을 다룬 선행연구를 개관하고자 한다.

1. 환경의 경험에 관한 제이론

1) 환경경험

환경의 경험이란 환경속의 자극이 인간의 반응을 유도한 결과이므로 경험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극에의 반응과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환경이나 행동에 대한 정의가 학자마다 다르듯이 반응이란 단어도 학자들간에 일치된 개념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문장의 맥락을 통해 그것의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즉 반응이란, 팽의로 모든 지각, 인지, 태도, 행동적 반응 등을 통합하여 지칭될 수 있으며, 협의로는 행동적 반응만을 나타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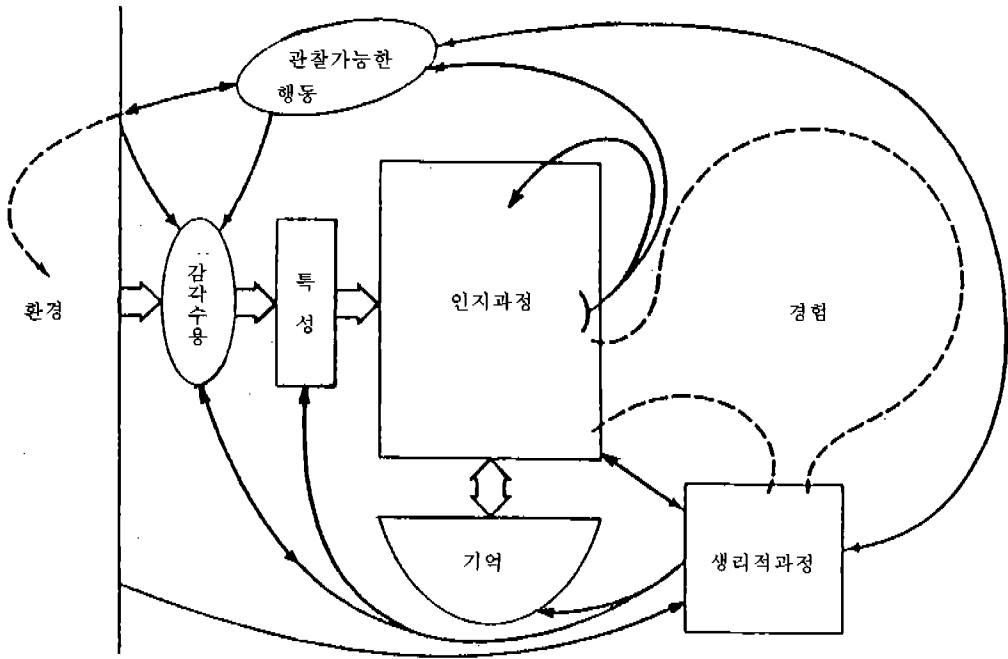
이러한 자극 반응 과정을 Sonnenfield(1972)와 Leff(1978) 그리고 Holahan(1982)의 모형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Sonnenfield(1972)는 인간이 환경에 반응하는 과

정을 지각, 통각, 인지, 반응의 4단계로 나누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Porteous, 1986). 맨 처음 둘러싸인 유기체의 환경으로부터 자극을 유기체가 지각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지각은 감각기관을 통하여 자극의 존재를 자각하게 되는 과정만을 언급한다. 훈련을 통해 자극을 강화시킬 수 있듯이 지각도 또한 경험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이때 지각 대상이 두뇌속에서 통각된다. 통각작용은 이전의 경험에 의하여 지각된 것을 해석하는 과정이다. 일단 지각대상이 배합되고 이해되면, 지각대상은 인지 즉, 유기체가 알고 있는 것이 된다. 이때 최초의 자극에 대한 반응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인지

된 '이미지'에 의한 반응이며 행동적 반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지된 '이미지'가 그와 유사한 자극에 의하여 다시 활동할때까지 인지창고에 저장된다.

Leff(1978)는 경험과정을 Sonnenfield(1972) 보다 추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는 환경에 대한 정보가 환경적 경험에 의해 수용되고, 작용되고, 저장되고 재고되면서 환경적 행동을 해나가는데 사용되는 도식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 모형은 관찰가능한 행동이 그러한 회전 형태내에서 인지발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피드 백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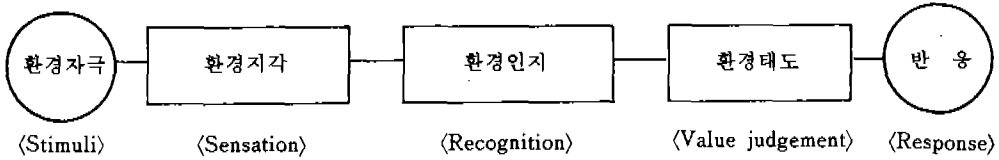


‘〈그림 1〉 Leff(1978)의 환경-인지과정 모델’ 삽입

출처 : Holahan, C.J.(1982). Environmental Psychology. New York: Random House.

Holahan(1982)은 환경 자극에 대한 인간의 반응 과정을 (그림 2)와 같이 환경지각, 환경인지, 환경 태도 등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그는 이 모형에서 행동적 반응은 환경에 대한 태도에 기반을 두

며, 그 태도는 환경의 인지에 기반을 두고, 그 인지는 환경의 지각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선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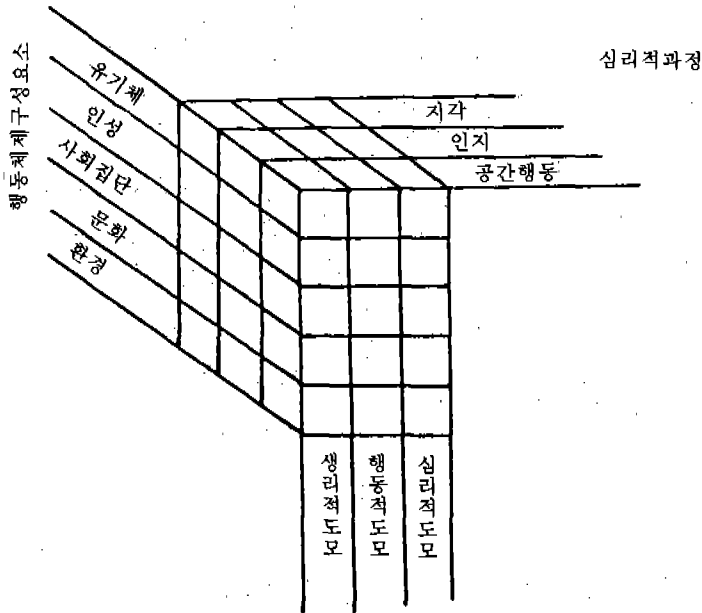


〈그림 2〉 ‘자극-반응과정 모델’ 삽입

출처 : 임승빈(1986). 환경심리 행태론. 서울 : 보성출판사.

Lang(1977)은 건축환경 계획시에는 환경자극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고려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심리적 반응을 건축환경과의 맥락속에서 정리하여

〈그림 3〉을 제시하였는데, 이 모델의 주요 관점은 다음과 같다.



건축환경의 기능

〈그림 3〉 건축환경과 반응관계에 대한 환경심리학적 관점

출처 : Lang, J. et al.(1977). Designing for human Behavior. Pennsylvania : Dowden, Hutchinson & Ross Inc.

건축환경은 인간의 정상적 행동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생리적 조건을 충족시키고, 정상적 행동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적 장치를 제공해야 하며, 심리적 욕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건축환경은 심리적 과정인 지각-인지-행동 체계의 각 단계에 부합되는 요소들

지녀야 한다. 즉 요구되는 행동유발의 잠재적 능력을 지니는 지각적 요소와 이를 사용자가 파악, 환경의 사용방법을 인식하게 하는 인지적 요소 그리고 행동을 유지시켜 주는 행동적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인간은 유기체로서의 생리적 능력과 개성을 지닌 개별적인 존재일 뿐아니라, 사회

집단을 이루는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가치관과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행동체계의 참여자임을 강조하였는데, 이 모델에서는 Talcott Parsons(1966)의 행동체계의 구성요소를 도입하여 인간의 유기체성, 인성, 사회집단의 구성원, 문화, 물리적 환경으로 구분하였다. 다시 말해서, 환경자극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자신의 심리적 과정 즉 지각, 인지, 행동 등으로 나타나지만 이러한 과정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생리학적 특성, 인성, 사회집단, 문화, 물리적 환경에 의해 종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민형식, 1982).

건축물이 사용자 측을 생각하지 않고 지어졌던 시대에는 이러한 반응에 대해 거의 고려하지 않았으나, 최근 잘 계획된 환경, 바람직한 환경 등의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반응에 대해 검토를 하려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의 대표적인 분야로 입주후 평가(Post Occupancy Evaluation)를 들 수 있는데, 대개 공간을 사용하는 인간의 반응을 그 평가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Murtha(1976)는 계획된 환경에 의해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잇점을 최대화 하고자 인간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4가지 평가기준으로 유형화하였다. 첫째, 행동의 용이성 기준(Behavioral Facilitation Criteria)으로, 이것은 환경이 사람들의 업무수행을 잘 돕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그 환경이 특정기능을 가능케하는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는가 하는 기능적 일치성(Functional Conformance)과 사용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공간조직이 적절한가 하는 공간적 일치성(Spatial Conformance) 등이 이에 속한다. 둘째, 생리적 유지 기준(Psychological Maintenance Criteria)으로, 이것은 물리적 환경의 쾌적과 안전, 특히 온도나 소음 수준에 관련된 것으로, 기후가 생체의 쾌적을 유지하기에 알맞은가 하는 기후적 일치성(Climate Conformance)과 위협이나 위협으로부터 사용자가 안전한가 하는 위협의 조절성(Hazard Regulation)이 이에 속한다. 셋째, 지각적 유지 기준(Perceptual Maintenance Criteria)으로, 환경자극의 범위가 그 환경내에서 수행되는 행동에 적합한지를 다루는 것이다. 넷

째, 사회적 용이성 기준(Social Initiation)으로, 사회적 행동의 바람직한 수준을 제공하는가 하는 사회적 유대성과 환경이 적절한 프라이버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사회적 독립성(Social Isolation)이 이에 속한다.

이상의 Lang(1977)과 Murtha(1976)의 모델에서 인간의 경험을 지각적, 인지적, 행동적, 사회적 반응으로 구분하려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2) 주거환경에의 반응

앞서 환경에의 경험과정을 환경자극과 이에 대한 반응 관계로 설명하였다. 이를 주거환경의 경험으로 범위를 축소하여 주거환경을 자극으로 보고 이에 대해 인간이 반응을 일으키는 과정, 즉 인간이 주거환경을 경험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제시된 이론적 모델들을 검토하였다.

Ajzen과 Fishbein(1981)은 인간은 어떤 사회적 대상에 대해 세가지 일반적인 범주내에서 반응한다고 하였는데, 이 세가지는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반응이라 하였다. Weidemann과 Anderson(1981)은 위의 세범주가 사회적 대상뿐 아니라 모든 물리적 대상에 대해서도 인간이 자신의 주거환경을 경험하는 과정이며, 이들이 곧 주거환경을 평가하게 되는 기반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차원이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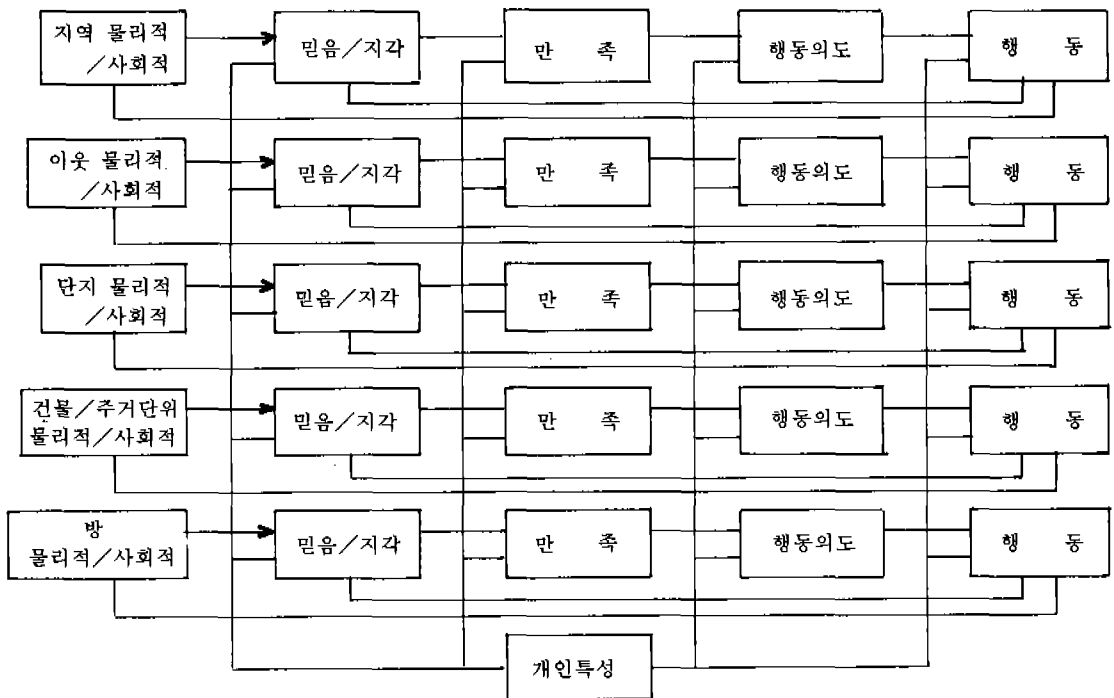
Marans와 Sprecklemeyer(1981)는 Ajzen과 Fishbein(1975)이 언급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반응을 포함하고 있는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 모형에서는 환경적 자극이 원인이 되어 지각과 평가측면의 인지적 반응을 야기하고 이 반응은 만족을 야기하고, 만족이 다시 행동적 반응을 야기하는 인과적 관계를 중시하였다.

그러나 만족이 반드시 행동적 반응을 유도하지는 않으며, 만족과 행동적 반응사이에 행동적 의도가 매개 변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다. 만족은 환경에 대한 일반적 태도인데, 태도를 다룬 연구에서의 중요 관심은 태도는 직접적으로 행동적 반응을 예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Ajzen과 Fishbein(1981)은 태도-행위의 불일치를 감소시키기 위해 행동적 의도라는 매개변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들 관계가 선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이 제시되고 환경을 경험하는 인간의 특성, 특히 사회계층이나 생활주기 등의 특성이 중요하다는 시각이 Weidemann과 Anderson(1986)에 의해 제시되었다.

Marans와 Rodger(1975)의 주거환경에 대한 거주자의 반응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 모델은 주거환경의 객관적 속성이 다양한 규모 즉, 주택단위, 이웃, 그리고 지역에서 각각 그 환경의 거주자들에게 지각, 평가, 만족 등의 주관적인 경험으로 받아들여지는 관계를 설명하였다. 지각적 경험 혹은 반응은 객관적 환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평가와 만족은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만족은 환경속성에 대한 평가에 근거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 모델은 객관적인 주거환경 속성을 단순히 물리적 속성뿐 아니라 사회 문화적, 조직적, 경제적 특성의 사회적 속성까지 포함하였고, 주관적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의 특성을 강조하였다. 개인적 특성이란 개인의 취향, 경험, 성격, 연령, 수입등 모든 제반특성을 말하는 것으로 그것에 따라 환경 자극을 받아들이고 느끼고 평가하는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 후 Weidemann과 Anderson(1986)은 주거환경에 포함될 수 있는 차원을 방, 주택단위, 대지, 이웃 그리고 지역으로 구분하여 그들이 강조 설명하였던 주거환경의 물리 사회적 속성을 포함한 <그림 4>와 같은 모델을 제시하였다. 주거환경은 이 모델에서 볼



<그림 4> 주거환경에 대한 반응의 개념 모델

출처 : Weidemann, S., & Anderson, J.R.(1986). A conceptual framework for residential satisfaction. In J. Altman & C. Werner(Eds.) *Human behavior and environment : Home environments*. Vol. 8, New York : Plenum, 153-182.

수 있듯이 여러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에 대한 반응은 대개 지각, 인지 반응을 거쳐 만족이라는 정서적 반응에 이르고 이 반응은 행동적 의도라는 인지적 반응을 유도하며, 이것은 실제의 행동반응을 야기한다. 이들 각 단계는 단순히 한 방향의 선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을 하여 영향을 미친다.

앞서 언급한 그리고 Lang(1977), Murtha(1976), 그리고 Weidemann과 Anderson(1986)의 모델들이 다루고 있는 주거환경 자극에의 반응 범주는 지각적,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반응 등이며, 특히 행동적 의도라는 판단 측면의 인지적 반응이 강조되고 있다.

3) 선행연구

주거환경은 미래, 특히 도시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생활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점으로 인해 끊임없이 연구되어 왔다. 주거환경을 다룬 최근의 연구에서는 만족, 평가, 선호, 실제의 행동적 반응을 다루었다. 앞서 제시한 모델에서는 지각 반응, 평가 인지적 반응, 정서적 만족 등을 구분하였으나, 선행연구에서는 만족, 평가, 선호 등의 개념이 그 자체가 서로 혼용되어 구별되지 않았다(Kaplan, 1983). 이들 중 선호는 경험을 다루었다기 보다는 미래에 대한 바람을 다룬 내용이 많았고, 또한 만족을 보다 구체적인 반응으로 구분하기 보다는 총체적인 인간반응으로 다루어 왔기 때문에(Tognoli, 1984) 본 연구에서는 거주자의 만족과 행동적 반응에 대한 선행연구를 개관하였다.

주거만족에 관한 연구들이 전반적인 만족도를 언급하고 있을 뿐 어떤 환경적 속성이 주민들의 긍정적, 부정적 반응에 관련되어 있느냐에 대해서는 불투명하게 다루어 온 경향이 있다는 지적(Marans, 1976)이 있다. 그러한 가운데, 구체적인 환경자극과 그에 대한 만족을 밝혀낸 선행연구에서 다루었던 환경자극들을 종합하여 Weidemann과 Anderson(1986)의 모델에서 주거환경 차원으로 언급되었던 범주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그 구체적 특

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박은선, 1989).

선행연구에서 다루었던 주거환경 자극의 차원은 방, 부엌, 식당, 취미공간 등의 주택 내부공간 차원, 주택의 실외공간 차원, 주택단위차원, 이웃차원, 지역사회 및 지역시설 차원 등이었다. 이들 연구에서 다루었던 주거환경차원에 대한 구체적 특성은 관리적 특성, 경제적 특성, 공간 부재, 공간 규모, 공간구조, 이웃간의 결속력, 이웃의 동질성, 이웃특성 등이었다.

구체적 환경자극과 그에 대한 행동적 반응을 다룬 선행연구를 개관하고, 이들 연구에서 다루었던 환경 자극을 종합하여, Weidemann과 Anderson(1986)의 차원에 따라 분류하면, 주택단위 차원, 주택내부공간 차원, 지역사회 시설 차원 등이었다. 또한 주거환경 차원들과 관련하여 다른 특성은 심미적 특성, 규모, 거리, 위치, 구조 등이었다.

이상과 같이 주거 만족과 행동적 반응에 관련되어 다루어져 온 주거환경 자극의 차원은 주택 내부공간 차원, 주택단위 차원, 대지 차원, 이웃 차원, 지역사회 차원으로 정리될 수 있다. 주거환경 차원과 관련되어 언급된 특성들은 관리적 특성, 경제적 특성, 심미적 특성, 존재 여부, 배치, 규모, 거리, 구조, 양식, 이웃간의 결속력, 이웃의 동질성, 이웃특성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4) 본 연구방법의 설정배경

주거환경 경험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거환경 자극에 대한 거주자 반응을 현재시점에서 주로 다루어 왔고, 이를 과거로부터 축적된 경험내용으로 파악한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는 과거로부터 축적된 인간의 주거환경에 대한 반응과정을 다루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경험내용의 파악을 위해서는 생활사적 접근방법이 필요하였다.

생활사적 접근방법은 현지연구법에 속하는 것으로 현지연구법은 이외에도 크게 관찰, 심층면접 등으로 나뉘지는데, 생활사 연구는 말로 전해내려오는 역사와 심층면접의 기록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한 개인, 집단등의 경험과 그러한 경험

을 스스로 해석하는 상황규정을 그들의 입장에서 연구하는 방법이다(김경동·이은숙, 1986). 따라서 생활사 연구는 인간의 행위란 행위자 자신의 입장에서 연구하고 이해하여야 한다는 전제위에 성립하게 된다. 생활사 연구의 재료가 개인이나 집단의 주관적 행동에 대한 이해를 위한 것이라면, 편지, 자서전, 신문기사, 법정 기록에 이르는 각종 문헌자료와 면접자의 자의적인 해석을 배제한 심층면접의 기록까지도 포함한다(김경동·이은숙, 1986). 생활사 연구는 주로 그 분석방법을 질적 분석에 국한시켜 왔다. 그러나 차배근(1985)은 최근에는 회견이나 자유응답식 질문을 통해 의도적으로 얻은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객관적, 수량적, 분석 방법인 내용 분석방법이 많아 쓰여지고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최근 환경심리학 분야에서 주택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Anthony, 1984) 주거의 경험에 대한 연구들이 진전되어 왔는데 그 대표적 연구로는 Tognoli and Horwitz(1982)와 Anthony(1984)를 들 수 있다. Tognoli and Horwitz(1982)는 이러한 연구가 최근까지 진전을 못해온 이유로서 물리환경적 자서전이 설명적 목적으로 연구되기 보다는 교육적 목적으로 교실내에서 과제로만 사용되었기때문이라 하였다. 그들은 어린 시기의 주택으로부터 청년기의 주택에 이르기까지 환경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소규모의 피면담자들이 말한 주거의 역사 혹은 경험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는 주택에 대한 기억을 어떻게 서술하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이들 속에서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나타나는가에 관심이 있다.

이에 비해 Anthony(1984)는 이전 주택을 방문하여 좋은 주택에 대한 기억을 조사하기 위해 심층면접법을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환경을 자극과 반응의 관점에서 보다 가깝게 접근하였는데 경치, 주택의 외관, 실내장식등이 관심을 받는 특성이었고 가장 선호된 실내속성으로는 넓은 규모와 평면계획이었다 하였다. 물론 이 연구는 모든 기억보다는 좋은 주택에 대한 기억만을 질문하

였다는 데에 본 연구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본 연구와 연구방법등이나 기본 방향이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보아진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의 과거 및 현재 주택에서의 경험을 거주자의 입장에서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활사 연구법이 가장 적절한 자료수집 방법이라고 판단되어 이를 통해 18명의 조사대상자로 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중 주거환경경험의 내용에 관한 것은 내용분석방법 절차를 통해 분석되었다. 그리하여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수량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분석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면접지침서인 질문지는 조사대상자의 일반 사항과 이사경험, 경험한 주택유형 및 경험한 주택에서의 주거경험 내용등으로 구성하였다.

1. 조사대상자의 선정

1987년 5월, 한국일보사에서 실시한 도시지역 중산층에 대한 조사*에서는 주택의 규모를 기준으로, 아파트인 경우에는 20-60평형의 규모로 중산층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이때 소유형태는 자가 및 독채 전세로 제한하였고, 20-29평의 규모에 있어서는 자기인 경우만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20-60평의 규모에 속하는 중계지역의 중산층 아파트 평수로는 26평, 31평이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조사를 기초로 하여 26평, 31평만의 아파트를 제공하고 있는 아파트를 조사대상 아파트로 택하였다.

조사대상 아파트 단지내 거주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1989년 1월 24일, 25일 2일간 아파

* 한국일보사 편집부(1987). 한국의 중산층. 한국일보사.

** 한국 토지개발 공사 내부자료(1988). 상계·중계 평형별 현황.

트 관리사무소를 2명의 연구원이 직접 방문하여 거주자들이 작성한 아파트 입주자 카드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하여 각세대의 가족구성원과, 만자녀 연령을 파악하여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경우인

(1) 부부와 그 자녀가 1명인 경우로서 만자녀가 미취학기에 속하는 가구 (2) 부부와 그 자녀가 2명인 경우로서 만자녀가 미취학기에 속하는 가구 (3) 부부와 그 자녀가 2명인 경우로서 만자녀가 국민학교 저학년에 속하는 가구 등 세가지 유형의 특성을 가진 가족을 택하여, 26평, 31평 각각 3가구씩 주부 18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기로 하고 이에 속하는 표본 목록을 작성하였다.

조사대상자 18명의 선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의 목적과 연구자의 신원, 면접방법, 예상 시간 그리고 시간할애에 대한 사례금 지급과 자발적 참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안내서를 1989년 1월 26일, 연구원 2명이 표본 목록에 해당되는 모든가구에 우편함을 이용하여 배부하였다.

(2) 자발적 참여를 위하여 안내서에 적힌대로 전화를 걸어 면접을 희망하는 주부는 6명이었다. 이 6명의 지원자와 12명의 조사대상자를 더 선정하기 위하여 두번째 협조요청을 하는 전화접촉이 시도되었다. 이러한 전화접촉 단계에서 5가구가 협조를 승낙하였다.

(3) 전화접촉 방법으로도 확보가 어려웠던 7명은 1989년 1월 28일 연구원 2명이 해당가구 통장의 소개를 받아 표본 목록에 있는 가구의 순서대로 방문 접촉하였다.

조사대상 주부의 연령분포는 29세에서부터 35세까지이며, 그 중 31세가 8명으로 가장 많았고, 남편의 연령분포는 32세에서부터 40세까지이며 그 중 33세가 5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부의 학력은 대학이상의 교육을 받은 남편이 16명, 주부가 14명으로 모두 고학력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직업은 회사원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이 7명이었다. 월평균 소득의 분포는 80만원부터 200만원 까지이며 90만원 이상—110만원 미만이 9명으로 가장 많았다.

2. 자료수집과정

연구원 1명이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고, 다른 연구원 1명은 조사대상자의 응답을 녹음하면서 어린 아이등으로 면접이 방해되는 상황이 발생했을때 이를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면접은 조사대상자, 그리고 조사대상자의 이사 횟수에 따라 약 20분에서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심층면접 내용은 각 조의 연구원 1명이 현장에서 녹음기록된 내용을 녹음테이프를 통해 들으며 정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주택 일반사항과 주거이동에 관한 사항은 면접 지침서에 요약하여 기록하였으며, 주택에서의 경험에 관한 면접자와 피면접자간의 질문, 응답내용은 한마디도 생략하지 않고 기록하여 개개인의 주거환경 경험의 내용에 관한 생활사를 작성하였다.

3. 자료분석의 절차와 방법

조사대상자의 기억에 남는 가장 오래전의 주택으로부터 현재의 주택에 이르기까지 각 주택에서의 경험에 관한 내용은 내용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유목, 분석 단위, 신뢰도 측정 그리고 자료의 처리 및 분석등에 관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분석유목의 설정

기존의 연구에서 주거환경 경험의 내용에 관한 분석유목을 설정한 예가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주거환경 경험의 이론적 모델과 선행 연구들의 검토과정에서 정리된 구체적 반응을 참조하여 관련 교수 2인과 본 연구자가 수집된 자료의 내용을 파악한 후, 분석에 적합한 분석 유목을 설정하였다.

조사대상자 18명이 과거 및 현재 주택에서의 경험에 관해 응답한 여러가지 내용은 주거환경 자극과 그에 대한 반응으로 나누고 반응은 다시 반응의 종류와 방향으로 나누어 분석되었는데(표 1), 구체적 분석유목은 다음과 같다.

〈표 1〉 응답내용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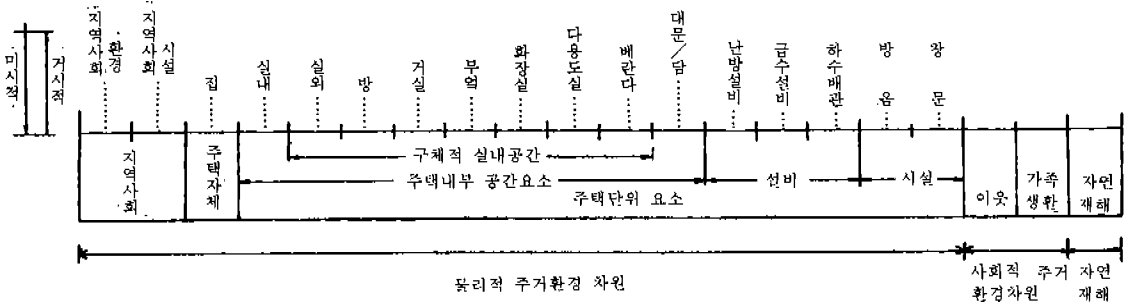
응답내용	분 석	환경 자극	반 응	
			종 류	방 향
예제 1) 화장실이 멀어서 불편했어요.		화장실이 멀음	불편했음	부정적반응
예제 2) 꽃밭이 있어서 좋았던거 같아요.		꽃밭이 있음	좋았던거 같음	긍정적반응
예제 3) 여러 가구가 사니까,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가 있었어요.		공동수도가 있음	없 (Knowing)	중립적반응

(1) 주거환경 자극

조사대상자들이 언급한 모든 자극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주거환경자극을 주거환경의 차원과 특성으로 나누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그에 따라 분석유목을 설정하였다.

주거환경의 차원에 관한 유목은 조사대상자가 구체적으로 언급한 주거환경 차원을 열거한 후,

문헌고찰 내용을 참고로 하여 같은 종류를 묶어 분류한 결과, 20가지로 나타났다. 같은 주택내의 공간이라도 실내전체에 대한 언급과 방, 거실등과 같은 공간에 대한 언급은 특정 분류유목을 따로 설정하여 각 주거환경 차원을 구체적으로 파악 할 수 있게 하였다(그림 5).



〈그림 5〉 연구자가 분류한 주거 환경 차원에 관한 분류 유목*

* 거시적인 물리적 주거환경 차원일수록 선의 윗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의 길이가 달라짐.

주거환경 특성에 관한 유목 또한 조사대상자가 구체적으로 언급한 특성을 중심으로 선행연구 검토과정에서 나타난 특성을 기초로하여 다음의 23가지로 분류하였다. 이들 각각의 특성을 열거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2) 주거환경 자극에 대한 반응

주거환경 자극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반응은 반응의 종류와 방향으로 분류되었는데 첫째, 반응의 종류는 주거환경 경험의 이론검토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제시된 인지적, 지각적, 정서적, 행동적,

사회적 반응등으로 분류되었고, 각 범주마다 나타나는 구체적 반응 특성에 따라 다시 11개 범주로 분류되었다. 각 반응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표 3〉과 같다.

둘째, 주거환경 자극에 대한 반응의 방향은 〈표 4〉와 같이 세가지로 분류되었다.

2) 분석단위 및 분석자료의 부호화 방법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의 총 주거환경 경험내용을 〈표 5〉와 같이 동일한 주거환경 자극에

관련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문장 또는 문단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통해 831개의 경험내용 단위가 구하여 졌으며 각 단위당 주거환경 차원, 주거환경 특성, 반응, 반응의 방향 등 4가지 분석 유목이 부호화되었다.

3) 신뢰도 측정

신뢰도 측정은 관련 교수 1인과 본 연구자가 본 조사에 의해 수집된 831개 경험 내용단위중에서

체계적 표집방법에 의해 추출된 80개 단위에 대하여 정해진 분석유목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이때, 본 연구자가 별도로 분류한 후 관련교수에게 그 일치여부를 묻는 방식을 택하였고, 그 결과에 의해 평가자간 신뢰도 계수(차배근, 1985)를 구하였다. 그 결과 분석유목의 신뢰도 계수는 각 유목별로 0.83-0.94까지의 수치로 나타났다.

〈표 2〉 주거환경의 특성에 관한 유목과 내용

주거환경의 특성에 관한 유목	내 용
위 생 적 특 성	온도, 소음, 채광, 공기, 청결에 관련된 환경 특성
자 연 적 특 성	산이나 나무, 꽃등과 같은 자연적 특성
운 영 / 유 지 관 리 특 성	수도, 화장실등의 공동사용이나 연탄갈기, 청소등과 같은 주거환경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성
시 공 / 성 능 특 성	부실공사나 결함, 성능상의 불량 등의 문제에 관한 특성
심 미 적 특 성	아름답거나 예쁘다고 하는 등이 특성
경 제 적 특 성	주변시장의 물가나 난방비 등과 같은 경제적 특성 및 도시계획과 같은 법규적 제약으로 인한 가치 및 집의 소유개념과 관련된 특성
사 회 적 특 성	지역사회의 정치적·사회적 상황과 관련된 특성
존 재 / 부 족*	주거환경 차원의 존재나 부족에 대한 특성
규 모*	넓거나 좁은 크기에 관한 특성
배 치*	특정 주거환경 차원의 수직적, 수평적 위치나 방향등의 특성
동 선*	주택내에서의 동선거리에 관련된 특성
구 조	주택 및 각 공간의 평면 구조적 특성
재 료	특정공간의 바닥이나 벽등의 마감재료에 대한 특성
양 식 특 성	한옥·아파트등과 같은 주택유형이나 연탄·기름보일러 등의 난방방식, 입식·재래식의 부엌형태 등과 같이 구체적 주거환경 특성과 관련지어 설명하지 않는 양식 자체의 특성
노 후 정 도	특정 주거환경 차원의 오래된 정도를 나타내는 특성
건 고 정 도	특정 주거환경 차원의 견고한 정도를 나타내는 특성
친 밀 도	이웃과 친밀한 정도를 나타내는 특성
동 질 성	이웃사람에게서 느끼는 동질감 또는 이질감등의 특성
이 웃 특 성	이웃사람의 성격이나 태도등과 관련된 특성
가 족 형 태	다른 가구와의 공동생활, 시집식구나 친정식구와의 생활 특성
생 활 특 성	직장생활이나 신혼 생활, 자녀양육생활등의 생활적 특성
가 정 생 활 주 기 변 화	자녀의 성장으로 인한 가정생활주기의 변화에 관련된 특성
홍 수	자연재해의 구체적인 특성

* 内田洋哉 저, 윤협로 역(1984). 건축의 환경심리, 국제출판공사.

〈표 3〉 주거환경 자극에 대한 반응

인지적 반응 -평가, 태도	주거환경의 편리성에 대한 평가나 판단 또는 선호와 관련된 반응
인지적 반응 -의견, 결정	주거환경에 대해 조사대상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거나, 또는 결정을 하는 반응
지각적 반응 -청각	'시끄럽다' 또는 '조용하다' 등의 청각과 관련된 반응
지각적 반응 -시각	'불게 많다' 또는 '넓어 보인다' 등의 시각과 관련된 반응
지각적 반응 -후각	'냄새' 등의 후각과 관련된 반응
지각적 반응 -촉각	'춥다' 또는 '덥다' 등의 촉각과 관련된 반응
정서적 반응	'기쁘다', '두렵다', '정서적으로 좋다' 또는 '뿌듯하다' 등과 같이 정서와 관련된 반응
행동적 반응	특정 주거환경 자극으로 인해 이사를 가거나 난로를 설치하는 등의 행동으로 나타낸 반응
사회적 반응 -유대	이웃 또는 가족과의 유대관계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반응
사회적 반응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반응
인지적 반응 -알	위의 어느 유목에도 속하지 않으며, 주거환경 차원 및 특성에 대해 단지 기억만 하고 있는 것

〈표 4〉 주거환경 자극에 대한 반응의 방향

부정적 반응	'나쁘다', '불편하다' 또는 '싫다' 등과 같은 반응의 방향
중립적 반응	반응의 방향이 부정적, 또는 긍정적이지도 않은 경우
긍정적 반응	'좋다' 또는 '편리하다' 등과 같은 반응의 방향

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조사대상자들이 경험한 주택의 유형과 이사할 때의 주요동기 및 이사횟수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을 구하였다.

주거환경 경험의 내용중 언급된 환경적 자극과 그것에 대한 반응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주거환경 차원, 특성과 반응의 종류 및 방향 등의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또한 주거환경 차원과 주거환경 특성과의 분할표를 작성하였고, 주거환경 자극과 그에 대한 반응, 반응의 방향에 관한 분할표를 작성하였다.

주택유형별로 언급된 환경자극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IV. 조사결과 및 논의

1. 경험한 주택의 유형

조사대상자들이 경험한 주택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분석단위는 1년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1) 국민학교 졸업(만 12세)시기 까지 (2) 중학교때 부터 결혼전까지 (3) 결혼 후 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3단계로 시기를 구분하여 각 시기동안에 각 주택유형을 어느정도 경험하였는가를 파악하였다.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조사대상자들은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옥에서의 경험이 가장 많았고, 양옥,

〈표 5〉 분석 자료의 부호와 방법

분석유목	주거환경 차원		주거환경 특성		반응의 종류		반응의 방향
	언급된 내용	분석유목	언급된 내용	분석유목	언급된 내용	분석유목	
분석단위에게	집 안	4. 실내	추운	1. 위생적 특성	파카잠바를 입을	8. 행동적 반응	부정적
2월에 결혼했으니까 겨울이잖아요. 너무 추워 추워가지고 집안에서 파카 잠바 입고 살았어요.	집 옆	1. 지역 사회환경	산	2. 자연적 특성	산책 갈 다님	8. 행동적 반응	중성적
집 옆에 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산책을 자주 다녀요.	거실	7. 거실/마루	바닥타일	13. 재료	짐을 구매	8. 행동적 반응	긍정적
거실의 바닥 타일이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이 타일때문에 짐을 샀거든요.	연탄	13. 난방 설비	연탄 가는것	3. 운영·유지관리특성	조금 불편함	1. 인지적반응 -평가·태도	부정적
우선 연탄을 해야 하니까 가느게 조금 불편했어요.	목욕탕	9. 화장실/목욕탕	없음	8. 존재/부족	조금나쁨	1. 인지적반응 -평가·태도	부정적
그런데, 목욕탕이 없으니까 그게 좀 나쁘죠. 한 여름에도 목욕하려면 나쁘잖아요.	내부	4. 실내	구조	12. 구조	불편함	1. 인지적반응 -평가·태도	부정적
내부구조도 마음에 안들었죠. 뭐, 다닥다닥 방하나 부엌하나 그렇게 있었으니까 아파트 같은 내부구조가 아니니까 불편했어요.	연탄난방에서 탈피	13. 난방 설비	난방방식 자체에 대한 언급	14. 언급	평장히 부자가 된것 같은 느낌	7. 정서적 반응	긍정적
연탄을 안때고 그러니까 내 자신이 굉장한 부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경이 180도로 변한거죠.	같은 나이의 조카와의 생활	19. 가족 생활 내용	같은 나이의 조카와의 생활	20. 가족 형태	갈등이 생겨 불편	10. 사회적 반응 -라이버시	부정적
조카가 거의 나랑 나이가 똑같은니까 그게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나한테는 그게 큰 불편이었어요. 생활하면서 의견 충돌이 많았어요.							

절충식 순으로 시간적 경험의 양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시기별로 보면 조사대상자들은 국민학교 졸업까지는 한옥, 양옥, 절충식 순으로 많

이 살았고, 중학교 졸업 후 결혼전까지 양옥, 절충식, 한옥 순으로, 결혼 후에는 고층아파트, 양옥, 저층아파트 순으로 경험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표 6〉 조사 대상자들이 경험한 시기별 주택 유형의 단위수(연령 및 결혼시기 기준)

주택유형	시기 분포	~ 국민학교 졸업		~ 중학교 ~ 결혼		결혼~ 현재		합 계	
		f	%	f	%	f	%	f	%
		한 옥	93	64.6	58	24.7	4	3.5	155
절 충 식	14	9.7	58	24.7	2	1.7	74	15.0	
양 옥	29	20.1	85	36.2	28	24.3	142	28.8	
저 층 아 파트	0	0	12	5.1	27	23.5	39	7.9	
고 층 아 파트	0	0	19	8.1	42	36.5	61	3.2	
연 립 주 택	8	5.6	0	0	8	7.0	16	3.2	
상 가 · 기 숙 사	0	0	3	1.3	4	3.5	7	1.4	
합 계	14	100.0	235	100.0	115	100.0	494	100.0	

경험한 주택유형의 변화를 조사대상자의 연령이 아닌 년도를 기준으로 파악해 보기 위해 이를 년도에 맞추어 재정리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10년 단위당 경험한 주택의 단위수를 비교하여 보면 〈표 7〉과 같다. 50년대에는 한옥, 60년대에는 한옥, 양옥 순으로, 70년대에는 양옥, 절충식, 한옥 순으로, 80년대에는 고층 아파트, 양옥, 저층아파트 순으로 경험의 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주거환경 경험의 내용

조사대상자들이 과거 및 현재 주택에서의 경험

에 관해 응답한 내용을 주거환경 자극과 그에 대한 반응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다.

첫째, 주거환경 경험의 내용 분포를 주거환경 자극의 차원, 특성, 반응의 종류 및 방향의 유목별 분포를 통해 파악하였다.

둘째, 주거환경 자극을 주거환경 차원 및 주거환경 특성과의 분할표를 통해 정리 파악하였다.

셋째, 주거환경 자극과 그에 대한 반응, 반응의 방향에 관한 분할표를 작성함으로써 주거환경 자극에 따른 반응과 그 반응의 방향을 정리 파악하였다.

〈표 7〉 조사 대상자들이 경험한 10년 단위당 주택 유형의 단위수(년도 기준)

주택유형	년도 분포	50~59년		60~69년		70~79년		80~89년		합 계	
		f	%	f	%	f	%	f	%	f	%
		한 옥	14	100.0	89	61.4	39	22.2	10	6.3	152
절 충 식	0	0	18	12.4	48	27.3	7	4.4	73	14.8	
양 옥	0	0	18	12.4	48	27.3	7	4.4	73	14.8	
양 옥	0	0	30	20.7	67	38.1	47	29.6	144	29.1	
저 층 아 파트	0	0	0	0	9	5.1	31	19.5	40	8.1	
고 층 아 파트	0	0	9	0	11	6.3	52	32.7	63	12.8	
연 립 주 택	0	0	8	5.5	0	0	7	4.4	15	3.0	
상 가 · 기 숙 사	0	0	0	0	2	1.1	5	3.1	7	1.4	
합 계	14	100.0	145	100.0	176	100.0	159	100.0	494	100.0	

1) 주거환경 경험의 내용 분포

주거환경 차원에 대해서는 주택 자체에 대한 언급이 33.3%로 가장 많았고, 주택내 공간요소에 대한 언급이 29.6%, 주택설비 및 시설에 대한 언급이 12.8%로 나타났다. 위의 각 차원내에서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보면, 지역환경 및 시설과 주택 자체에 있어서는 주택자체(18.4%)와 지역사회 시설(10.0%)에 대한 언급이 지역사회 환경(4.9%)에 대한 언급보다 많았고, 주택내 공간 요소에 있어서는 실내(5.7%)와 화장실/목욕탕(5.3%), 실외공간(4.4%)에 대한 언급이 기타 공간에 대한 언급보다 많았다. 주택 설비(10.7%) 및 시설(4.5%)에 있어서는 난방설비(5.4%)에 대한 언급이 많았고, 가족생활 내용과 이웃에 대한 언급도 많았다.

조사대상자들은 주거환경 차원과 함께 그 특성에 대해 응답하였는데, 존재나 부족 특성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았고(13.6%), 배치에 관한 내용이 12.6%이었으며, 구조에 관한 내용이 8.3%, 규모에 관한 내용이 7.5%로 각각 나타났다. 따라서 건축계획의 결정요인 5가지, 즉 존재계획, 규모계획, 배치계획, 동선계획, 운영계획(內田洋哉, 1984)등에 관하여 존재, 배치, 규모, 운영, 동선계획 순으로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환경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인지적 반응이 68%로 가장 많았고, 지각적 반응이 11.3%, 행동적 반응이 7.6%, 정서적 반응이 7.5%, 사회적 반응이 5.6%로 나타났다. 인지적 반응중에서도 단지 알고만 있는 인지적 반응이 32.5%로 가장 많았고, 평가나 태도측면의 인지적 반응이 31.2%였다. 지각적 반응중에서는 촉각에 관한 반응이 가장 많았다(5.4%).

언급된 내용중 부정적 반응이 39.6%로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자극에 더 민감히 반응한다는 전기피부 반응의 결과(Compton & Hall, 1972)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립적인 자극보다 긍정적인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전기피부반응의 결과와는 달리 중립적 반응이 38.1%로 긍정적 반응(22.3%)보다 더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부정적 반응이 많이 나타난 것은 다음의 두가지 측면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사람들은 부정적인 자극을 긍정적인 자극보다 더 많이 인지하는 경향이 있으며 둘째, 조사대상자들은 현재까지 경험한 주택에서 실제로 긍정적인 것 보다는 부정적인 환경자극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가지 경향의 조합에 의해 위와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주거환경의 차원과 특성

조사대상자들이 응답한 과거 및 현재주택에서의 주거환경 자극을 주거환경 차원과 주거환경 특성과의 분할표를 통해 정리 파악해 보면 <표 8>과 같으며, 5번이상(0.7%) 언급된 주거환경 자극만을 정리해 보면 <표 9>와 같다. 이 요약된 주거환경 자극 분할표는 전체내용의 81.7%를 설명해 준다. 가장 많이 언급된 물리적 주거환경 자극은 집의 배치특성(10.0%), 지역사회시설의 존재/부족 특성이었고(7.9%), 실내의 구조(4.1%), 지역사회 환경의 자연적 특성(2.6%), 실외의 자연적 특성(2.6%)과 거실의 재료(2.2%)에 대한 언급도 비교적 많았다.

3) 주거환경 자극과 그에 대한 반응

조사대상자들이 언급한 주거환경 자극에 대한 대표적인 반응의 종류와 반응의 방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수가 극히 낮은 것(2이하)을 제외하고 표시하여 보면 <표 10>과 같다. 이 표는 전체반응의 51.1%를 설명한다.

3. 주택유형과 주거환경경험의 내용

주거환경경험의 내용을 주택 유형별로 알아보기 위해 각 주택유형에 따른 주거환경 차원의 언급빈도를 파악하였다. 이때 총 162개의 주택단위가 분석에 사용되었는데, 조사대상자별로 주택 유형을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빈도수가 매우 낮은 상가와 기숙사를 제외한 한옥, 단독주택(절충식, 양옥), 고층아파트, 저층아파트, 연립주택등 주택유형별로 언급된 주거환경

〈표 9〉 요약된 주거환경 지적 분할표

주거환경 지적 구분	주거환경 지적 구분		지역사회 경시 실		권 실		실 내		실 외		방 법		거실/ 마 루		부 속		화장실/ 목욕탕 / 창고		대문/담 배문/창고		남방선미 금수원미		방음/ 방수...		창문/문/ 복도이강		이 웃		가족생활 용						
	f	%	f	%	f	%	f	%	f	%	f	%	f	%	f	%	f	%	f	%	f	%	f	%	f	%	f	%	f	%					
환경특성	18	2.4																																	
위생적특성	20	2.6																																	
자연적특성			5	0.7	5	0.7																													
운임/유자관리특성																																			
시공/상능특성																																			
경제적특성					17	2.2																													
준재/부족			60	7.9																															
구 모			5	0.7	7	0.9	7	0.9	6	0.8	10	1.3																							
배 차			8	1.1	76	10.0																													
동 선																																			
구 조			18	2.4	31	4.1																													
색 내													17	2.2																					
장 적			9	1.2																															
노 후			9	1.2																															
관 업																																			
동 질																																			
이 관																																			
가 족																																			
생 활																																			
합 계	38	5.0	79	10.4	149	19.7	38	5.0	32	4.1	17	2.2	17	2.2	21	2.8	25	3.4	5	0.7	5	0.7	35	4.5	14	1.8	7	0.9	17	2.2	35	4.5	88	11.6	81.7

〈표 10〉 대표적인 주거 환경 자극과 그에 대한 반응

주거환경 자극	직접시연환경 / 지형사회시설				길				실내				밖				이웃	기주환경내용				
	위 선 경	위 선 경	위 선 경	위 선 경	위 선 경	위 선 경	위 선 경	위 선 경	위 선 경	위 선 경	위 선 경	위 선 경	위 선 경	위 선 경	위 선 경	위 선 경			위 선 경			
인공적인물	-	0	27	3	4	20	8	4	5	5	11	6	5	1	3	3	3					
-풍기, 대도	+	0	11	3	7	3	12	3	12	3	12	3	12	3	12	3	12					
인공적인물	-	0																				
-이전, 이전	+	0																				
저각적인물	-	0																				
-경각	+	0																				
저각적인물	-	0																				
-시각	+	0																				
저각적인물	-	0																				
-음각	+	0																				
저각적인물	-	0																				
-음각	+	0																				
경시적인물	+	0																				
생동적인물	+	0																				
사회적인물	-	0																				
-유대	+	0																				
사회적인물	-	0																				
-프리아버서	+	0																				
합적적인물	-	0	4	8	17	5	4	11	13	7	6	8	4	6	3	4	9	8	8	6	5	30
-합	+	0	4	8	17	5	4	11	13	7	6	8	4	6	3	4	9	8	8	6	5	30

〈표 11〉 조사 대상자별 경험한 주택 유형의 수

주택유형 대상주부	한옥	절충식 주택	양옥	저층 아파트	고층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상가주택	합계
1		1	4		3			1	9
2	1	1	2	1	1				6
3	2	2	9	1	2				16
4	2		2	3	2				9
5	2	1	6		1				10
6			2	1	5				8
7	1	3		3	1	2			10
8	1		1		2	2			6
9	2	2	2	1	1				8
10		2	1	2	1	2			8
11	1				5				6
12	2		6		3			1	12
13			2		3				5
14	2	1	1		2				6
15	2		1		1				4
16	5		4		2	2		2	15
17	2	1	4	1	2				10
18	2	2		1	8		1		14
합계	27	16	47	14	45	8	1	4	162

〈표 12〉 주택 유형별 언급된 주거 환경 차원의 분포

주택유형 분포	한옥 (27)		단독 (63)		고층 (47)		저층 (14)		연립 (8)	
	f	%	f	%	f	%	f	%	f	%
지역 사회 환경	13	8.8	9	4.1	16	6.8	1	1.6	2	3.4
지역 사회 시설	6	4.1	3	1.3	63	26.6	3	4.8	4	6.9
집	36	24.3	53	23.1	39	16.5	15	24.2	6	10.3
실내	3	2.0	17	7.7	16	6.8	3	4.8	5	8.6
실외	15	10.1	18	8.1	0	0.0	0	0.0	1	1.7
방	6	4.1	7	3.2	6	2.5	5	8.1	2	3.4
거실 / 마루	3	2.0	7	3.2	17	7.2	0	0.0	0	0.0
부엌	7	4.7	11	5.0	9	3.8	1	1.6	2	3.4
화장실 / 목욕탕	13	8.8	15	6.8	8	3.4	4	6.5	3	5.2
디용도실 / 창고	4	2.7	0	0.0	6	2.5	3	4.8	0	0.0
베란다	2	1.4	0	0.0	5	2.1	0	0.0	1	1.7
대문 / 담	2	1.4	7	3.2	0	0.0	0	0.0	0	0.0
난방 설비	2	1.4	17	7.7	5	2.1	12	19.4	7	12.1
급수 설비 (수도 / 온수 / 우물)	15	10.1	7	3.2	1	0.4	2	3.2	3	5.2
하수 배관 설비	1	0.7	1	0.4	2	0.8	1	1.6	0	0.0
방음 / 단수 / 단열 / 환기	0	0.0	1	0.4	4	1.7	1	1.6	1	1.7
창문 / 문 / 불박이장	2	1.4	6	2.7	10	4.2	2	3.2	1	1.7
이웃	2	1.4	9	4.1	11	4.6	1	1.6	11	19.0
가족 생활 내용	14	9.5	34	15.4	19	8.0	8	12.9	9	15.5
자연 재해	2	1.4	1	0.4	0	0.0	0	0.0	0	0.0
합계	148	100.0	221	100.0	237	100.0	62	100.0	58	100.0

()의 숫자는 가구수임.

차원의 분포를 보면 (표 12)와 같다.

이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종합하면 고층아파트의 경우에는 지역사회 시설이,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실외가, 저층아파트의 경우에는 난방설비가, 한옥의 경우에는 실외 및 급수설비가, 그리고 연립주택에서는 이웃과 난방설비에 대한 언급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고층아파트의 경우 지역사회 시설에 대한 언급이 많았던 것은, 계획된 주거환경에서는 실제 지역사회시설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지역사회시설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있는가의 문제는 거주자의 반응을 유도하는 중요한 측면이라고 보고한 Werthman과 그의 동료(196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한옥과 단독주택의 경우 마당이나 꽃밭등과 같은 실외에 대한 경험내용이 많이 언급된 것은 거주자들은 넓은 대지가 있는 주택에서 생활하는 것에 만족을 느낀다고 보고한 Lansing과 Hendricks(1969)의 연구와 일치한다고 볼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이상에서 중산층 주부의 주거 환경 경험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첫째, 조사대상자들이 어떤 특성을 가진 주택에서 살아왔는 지를 파악하고 둘째, 주거 환경 경험의 내용중 언급된 환경 자극과 그것에 대한 반응관계를 알아보고 셋째, 주택 유형과 언급된 환경 자극과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은 한옥, 절충식, 양옥, 연립주택, 저층아파트, 고층아파트 등과 같은 다양한 주택 유형을 경험하였으며, 50년대에는 한옥, 60년대에는 한옥, 양옥, 절충식 순으로, 70년대에는 양옥, 절충식, 한옥 순으로, 80년대에는 고층아파트, 양옥, 저층아파트순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조사대상자들이 거주했던 주택이 우리나라 주택 유형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주거 환경 경험의 내용을 자극과 반응으

로 분류하여 파악한 결과, 주택 외부 및 주택 자체에 있어서는 집의 배치, 지역사회 시설의 유무가, 주택내 공간요소에 있어서는 실내의 구조, 화장실의 운영·유지 관리, 실외의 자연적 특성등이 많이 언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택 설비 및 시설에 있어서는 난방 설비의 운영·유지 관리가, 가족 차원에 있어서는 생활 특성과 가족 형태, 이웃 차원에 있어서는 친밀도등이 많이 언급되었다. 주거 환경 자극에 대해서는 주로 인지적 반응을 보였고 반응의 방향을 파악해 본 결과, 부정적 경험이 가장 많았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조사대상자들이 인동 간격이나 집의 위치, 방향등과 관련된 집의 배치 특성에는 주로 부정적 경험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쇼펄센터나 공원, 놀이터, 학교, 병원등과 같은 지역사회 시설의 유무에 대해서도 부정적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너무 개방적인 아파트 실내구조와 시어머니와 같이 방을 마주보고 사용해야 하는 실내구조 등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불편이 많았다. 그리고 여러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느꼈고, 난방 설비의 유지관리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불편이 많았다. 대가족 또는 여러구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등의 동거 형태 특성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부정적 경험을 하였다. 그러나 마당이나 정원의 나무, 잔디, 꽃과 같은 자연적 특성과 이웃과의 친밀한 교체에 대해서는 주로 긍정적인 경험을 하였다.

셋째, 주택 유형별로 나타난 주거 환경 자극을 파악한 결과, 고층아파트에서는 지역사회시설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단독주택과 한옥에서는 옥외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많았다. 그리고 저층아파트와 연립주택에서는 난방설비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즉 고층아파트 거주자는 지역사회 시설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가를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으며, 한옥과 단독주택에서는 마당이나 꽃밭 등이 있는 대지에서 생활하는 것에 만족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조사대상자들이 집합주택 발전단계의 과도기적 시기에 저층아파트와

연립주택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난방설비상의 문제가 많이 언급된 것으로 생각된다.

네째, 이러한 주거환경에 대한 과거의 경험을 통해 거주자 측면에서 본 주거 환경의 문제점과 긍정적 이미지로 남아있는 경험내용은 미래 주택 계획시 반영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을 기초로 앞으로의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앞으로의 연구에서 다른 지역과 다양한 연령의 층으로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면 현 사회의 층이 어떠한 주거를 경험하였는지를 폭넓게 파악할 수 있겠다. 또한 저소득층 및 고소득층으로도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여 계층간 비교 연구를 할 수 있다. 이를 통한 주거환경에 대한 연령별, 계층별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경험은 그들을 위한 주거계획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를 주부로 제한하였으나 주거는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경험적 장이 되므로 동일 주택내에 거주하는 남편 및 자녀들에게도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여 주거환경 경험 내용이 성별 또는 연령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1. 강봉수(1987). 지역별 거주자 특성에 따른 공동 주택 주거환경 평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민형식(1982). 환경지각과 건축적 표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임승빈(1986). 환경심리 형태론. 서울 : 보성출판사.
4. 차배근(1984), 사회과학 연구방법. 세영사.
5. 内田洋哉 저, 유희로 역(1984). 건축의 환경심리. 국제출판공사.
6. Compton, N.M., & Hall, O.A.(1972). Foundations of Home Economics Research : A Human Ecology Approach. Burgess Publishing Company.
7. Holahan, C.J.(1982). Environmental Psychology. New York : Random House.
8. Landd, F.(1977), You Can Go Home Again. Landscape. vol. 21. 15-20.
9. Lansing, J.B., & Handricks, G.(1967). Automobile Ownership and Residential Density. In K.H. Craik & H. Zube(Eds.) Perceiving Environmental Ruality. New York : Plenum.
10. Lansing, J. et al(1977). Designing for Human Behavior. Pennsylvania : Dowden, Hutchinson & Ross Inc.
11. Lawrence, R.j(1983). Understanding the Home Environment : Spatial and Temporal Perspectives. International Journal Housing for Science and Its Applications. vol. 1, No. 1.
12. Leff, H.L.(1978). Experience, Environmnet, and Human Potentials.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3. Parson, Talcott(1966). Societies. Englewood Cliffs. New York : Prentice - Hall.
14. Porteous, J. Douglas.(19). Environment and Behavior. Reading. Massachussets : Addison - Wesley Publishing Company.
15. Sonnenfield J.(1972). Geograpy, Perception, and The Behavioral Environment in P.W. English and R.C. Mayfield(Eds.). Man, Space and Environment.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6. Weidemann S., & Anderson, J.R.(1986). A Conceptual Framwork for Residential Satisfaction. In J. Altman & C. Werner(Eds.) Human Behavior and Environment : Home Environments. Vol. 8, New York : Plenum, 153-182.
17. Werthman, C., Mandel, J.S., & Dienstfrey, T.(1965). Planning and The Purchase Decision : Why People Buy in Planned Communi-

tie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Institute of Regional Development, Center for

Planning and Development Research. Reprint No. 10.